

피오텍[ピオテック]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내는 방법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福岡市南区大橋1-3-5
- 분 야 : 화학
- U R L : <http://www.pio-ltd.jp>

2) 기업 소개

□ 불법 벽보와 낙서

- 거리를 둘러보면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불법 포스터와 낙서,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「피오(Pio)」시리즈를 개발한 회사가 피오텍(ピオテック)임
- 이 회사가 Pio시리즈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약 5년 전으로, 그 때는 불법으로 붙이는 각종 벽보와 낙서들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거의 없었음
- 피오텍의 전신인 ‘서일본화공(西日本化工)’ 시대에 어느 고객이 불법 벽보와 낙서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한마디가 제품 개발의 계기가 됐음
-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면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일념받기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완성한 제품이 「피오(Pio)」 시리즈임

- 상품을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제품을 보고 ‘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’ 라고 생각으로 극복했다고 함
- 피오텍의 시작은 2006년 7월 1일로, Pio 시리즈 상품을 출시하면서 사명을 ‘피오텍’ 으로 변경했음
- Pio시리즈는 2006년 가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입되었는데, 당시 신문에 관련 기사가 매일 게재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문의가 쇄도했었다고 함
- 물론 이미 전력회사나 지자체에 적지 않은 납품실적과 시공실적을 가지고 있었음
- Pio시리즈는 간단하게 벽보를 떼어내고 낙서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 도료임
-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중시해서 주성분으로는 고체유지(固體油脂)¹⁾를 사용했고 발수성²⁾도 높다는 특징이 있음
- 미리 먼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한 표면에 롤러 등으로 도료를 바르는 작업을 2회 정도 반복하면 되고, 빨리 마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음
- 이 같은 도료 작업을 할 수 있는 표면은 콘크리트, 도장면, 금속 등 다양함
- 벽보의 경우에는 풀이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, 스프레이로 쓴 낙서의 경우에는 접착력을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음

1) 고체유지(固體油脂) : 단백질 및 탄수화물과 함께 생물체의 주요성분으로 상온에서 고체상인 것을 지방, 액체상인 것을 기름 또는 지방유라고 하며, 양자를 총칭하여 유지라고 한다.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에테르, 석유계 용매, 알코올 등에 녹는 것이 특징임

2) 발수성(撥水性) : 식물 따위의 표면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으며 물을 튕기는 성질

- 한 번 작업으로 약 3년에서 5년 간 효과가 지속됨
- 판매 대리점 모집은 수시로 하고 있지만,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
-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심 경관을 깨끗하게 바꾸는데 일조할 의지가 있는 기업과만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음
- 또한 이 같은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이 달라도 대리점 계약을 맺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음

□ Pio시리즈의 기술을 응용하다

- 한편 피오텍은 Pio시리즈를 만들면서 얻게 된 고체유지를 이용한 기술의 응용을 생각하고 있으며, 이미 개발에 착수한 응용 분야는 두 가지임
- 첫째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(劣化)를 막는 것으로, 강도를 높이고 균열 등을 방지하여 콘크리트의 수명을 늘려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임
- 둘째는 식품 공장에서의 곰팡이 대책으로 공장 등의 벽에 도포하여 식품 공장에서의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것임
- 두 응용 분야 모두 작업현장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‘할 수 있는 것부터’ 라는 기본자세에서 시작된 사업임
- 배려의 정신은 이 회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,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다양한 분야로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

□ 향후 전망

- 낙서와 불법 벽보를 퇴치시키는 Pio시리즈가 앞으로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
- 작업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기의 비결인 듯함
- 그렇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공적은 「우리의 손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」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킨 것임
- 이 같은 제품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, 주민들이 감시하는 눈을 피해 지워도 다시 낙서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